

“무한 경쟁이 대한민국을 잠식한다” 서상철 저 (지호 출판사, 2011)*

서 상 철 (캐나다 원저대학 경제학과 교수)

이 책은 근래 한국에 발생한 부정적 사회 상황들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예를 들면 왜 유독 한국에만 기러기 가족과 같은 이산가족 현상이 나타날까? 소득 수준이 올라가서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 왜 자살률이 가파르게 증가 할까? 왜 한국의 직장인 75%가 가능하면 이민을 가겠다고 하는가? 그리고 왜 한국의 청소년들은 사회유대성에서 세계 최하위일까? 왜 여성들의 출산이 급격히 감소할까? 한국인은 경제력 대비 포르노 소비가 가장 높은데 성 만족도는 왜 최하위일까?

위의 몇 가지 질문들은 근래에 발생한 한국의 사회문제(병)의 증상들의 일부분이다. 이 책은 그 병의 원인이 무분별한 경쟁 강화라고 말한다. 현대 시장 경제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그리고 경제 성장에 성공한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인 경쟁이 사회의 병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이 책은 자유 시장의 논리를 신봉했던 경제학도의 한사람으로 자신에 대한 비판이고 한국의 경제학자들에 건네는 질문이며 사회의 병에 대한 원인을 같이 생각해 보자는 초청장이다. 경쟁 논리는 약점은 있으나 그래도 필요하다는 생각으로부터 한국 사회에서는 경쟁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기를 희망한다.

여기서는 책의 개략적 소개를 위해서 아래 3 단원으로 나누고 각 단원에 관계되는 쟁점들을 책에서 발췌하여 질문 형식으로 담았다.

* 책의 대부분의 내용은 프레시안에 공작의 꼬리 경쟁이라는 타이틀로 연재되었음. http://www.pressian.com/article/ttag_article_list.asp?Tag_String=%BC%AD%BB%F3%C3%B6 참조.

1. 경쟁이 왜 나쁜가?

1)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 경쟁적 인가? 아니면 이타적, 협동적인가?

경제학은 이기적(이성적) 인간을 기본 출발점으로 한다. 인간이 이기적일 뿐만이 아니라 경쟁을 통한 이기적인 이해 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전체에 도움이 되는 장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 진다.

동물과 인간을 이기적이고 경쟁적 본성으로 파악하는 사람들은 자연 세계를 경쟁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경쟁 본능을 가진 종이 승리하여 자손 번식에 성공함으로써 그러한 경쟁적 본성이 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 역시 예외는 아니며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본성이 경쟁적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쟁 사회는 우리의 본성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현재의 한국 사회가 당면한 경쟁 사회를 정당화하거나 또는 사회를 더욱 경쟁적으로 만드는 데 이용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사회, 교육, 경제 문제나 모순들은 피할 수 없으며, 받아들이고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동물들은 싸움에서 이겨서 종족 번식에 성공한 것인가? 아니면 서로 돕고 협동해서 종족 번식에 성공한 것인가? 고생물학자인 조지 게이로드 심슨(George Gaylord Simpson)은 이렇게 말한다. “싸움이 없는 것은 아니나, 종종 싸움은 자연선택에 이롭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오히려 평화적 방법이 자손 번식에 더 유리하다. 환경에 조화, 자연과의 균형 유지, 먹을 것을 잘 활용함, 자식들을 잘 돌보는 것, 다른 종족과의 불화 제거, 환경 보전 등이 진화에 중요하다.”¹⁾

개인 또는 개개의 동물은 고립된 상태로는 자연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동물들이 무리를 짓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이유는 경쟁으로 인한 비용보다는 협동으로 인한 이익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동물들은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그들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경쟁보다는 협동이 기본이 된다. 늑대나 하이에나 같은 동물들은 먹이를 사냥할 때 협동이 필수적이다. 물론 그들의 내부에도 경쟁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사회에 협동이 없다면 그들은 존재하기 힘들 것이다.²⁾

동식물들의 생존에는 종족끼리의 협동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종족끼리의 협동 역시 중요하다. 지구에 있는 나무들의 85퍼센트는 일종의 곰팡이들과 공생을 한다. 곰팡이는 나무의 뿌리에 살면서 나무가 중요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을 돕고, 또 다른 기생충의 공격을 막아준다. 그 대신 나무는 곰팡이에게 당분을 제공한다. 그리고 해로운 박테리아도 있지만, 도움이 되는 박테리아가 더

1) The Meaning of Evolution(Simpson, George Gaylor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49).

2) <이타적 인간의 출현>(최종규, 뿌리와이파리, 2009) 참조.

많다. 우리의 몸속의 박테리아 수는 세포수의 10배나 된다고 한다. 그 박테리아들 중에는 양분의 흡수를 돕는 것, 면역을 돕는 것, 다른 해로운 박테리아로부터 보호해주는 것들이 있다. 많은 개체가 이러한 공생관계로 살아가고 있다. 적자생존, 또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는 극한 경쟁 상황과는 정반대인 것이다.

인간으로 90퍼센트가 훨씬 넘는 시간을 아주 평등한 원시 채집 공동체에서 보냈다. 현대의 불평등은 대체로 농업의 도입과 발달과 함께 시작된다. 수렵채취 시기는 가족이나 친족, 또는 부족의 협동에 근거한 유대가 생존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던 시기였다.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협동과 유대는 인간의 본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이 시기에 진화한 인간은 현대의 시장경제에서 요구하는 경쟁과 효율을 위한 이기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인간과는 거리가 있다. 인간의 이기적 효용 극대화와는 상반되는 공정함과 공평함을 추구하기도 하고, 경쟁에 이기려고만 하는 인간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도 하는 공동체 정신이 있었다.

2) 경제학이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드는가?

경제학에서 인간의 이기적 동기를 강조한다. 각 개인이 갖는 이기적 동기를 바탕으로 한 경제 행위들이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경제학 교육이 인간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재미있는 연구 조사를 보도록 하자.³⁾

아래는 죄수들의 게임 상황에서 경제학 전공자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다.

죄수들의 딜레마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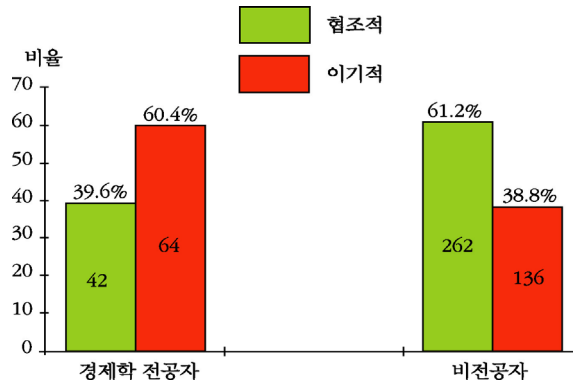
		상대방	
		협조적	이기적
당신	협조적	상대방 몫 2 당신 몫 2	상대방 몫 3 당신 몫 0
	이기적	상대방 몫 0 당신 몫 3	상대방 몫 1 당신 몫 1

이 경우에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경제학에서 가르치듯이 대개 이기적(이성적)으로 행동한

3) http://www.gnu.org/philosophy/economics_frank/frank.html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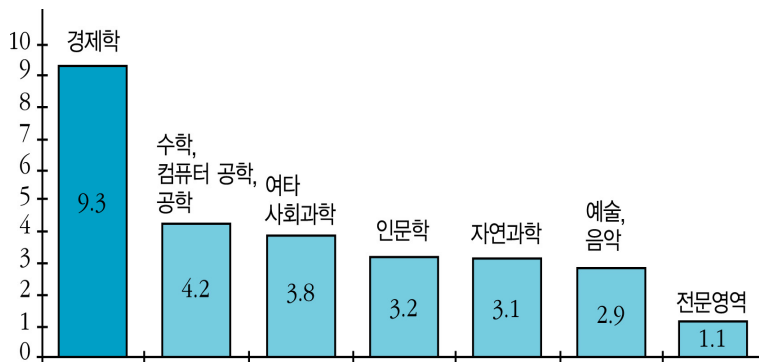
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경제학자들은 약 60퍼센트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약 40퍼센트 정도만이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결국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최대의 이익을 제공해주는 선택을 하지만, 집단적으로는 열등한 결과를 초래한다. 여기서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위들이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는다.⁴⁾

경제학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죄수 딜레마 게임에서의 행동 비율



경제학을 배운 사람들이 협동적이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경제학자들이 기부에 있어서 얼마나 인색한지를 밝히는 다음의 설문 결과를 보자. 아래 그림은 대학교수 1,245명의 자선단체에 얼마나 기부를 하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이다. 응답한 교수들 가운데 기부를 전혀 하지 않는 교수들을 분야 별로 분류하였다. 경제학 교수들이 가장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학교수들의 자선 기부를 전혀 하지 않는 비율



4) http://www.gnu.org/philosophy/economics_frank/frank.html 참조.

이기적 인간의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서,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행위들이 성장의 원동력이기에 이기심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가르치는 경제학자들의 선택이 어떠한지 우리는 보았다. 그들은 그러한 논리를 배우고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더욱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뿐만이 아니라 경제학을 수강하는 학생들에 대한 연구 역시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⁵⁾ 경제학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 비교해 보면 기부를 적게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강 효과이다. 타과 학생으로서 경제학 강의를 들은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경제학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더욱 이기적으로 된다. 즉 경제학을 수강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 비교해 기부를 적게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기적 행위나 경쟁 논리가 강화되는 사회에서는 우리 자신이 그에 적응하여 더욱 더 이기적이고 경쟁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그리고 교수들이 학습 효과에 따라 더욱 이기적이 되며 협동하지 않게 되듯이, 한 사회도 마찬가지로 경쟁과 이기적 행위가 장려되면 구성원들 역시 더욱 경쟁적이고 이기적이 될 것이다.

3) 죄수의 게임, 공작의 꼬리 경쟁과 한국 입시 경쟁은 같은가?

수컷 공작은 긴 꼬리를 갖고 있다. 그 긴 꼬리를 부채 모양으로 활짝 펼쳐 아름다움을 과시하고 암컷들을 유혹한다. 공작은 그러한 꼬리를 유지하기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긴 꼬리를 만들려면 우선 먹이를 더 먹어야 하기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하고, 그 꼬리는 거추장스러워 다른 동물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도망가기가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

공작 세계에서 승자는, 즉 긴 꼬리를 가진 수컷은 외부의 세계에서 경쟁에 오히려 패자가 되기 쉽다. 공작이 긴 꼬리를 유지하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먹이가 풍부하다거나 심각한 위협이 되는 포식자가 적은 유리한 환경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화한다면 그러한 꼬리 경쟁의 낭비는 그들 종의 번식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멸종에 이르게 되는 비극적인 경우도 있는 데 바로 아이리쉬엘크가 대표적이다.

수컷 아이리쉬엘크는 건강을 뺏내는 그리고 암컷을 유혹하는 아주 크고 멋진 뿔을 지니고 있다. 키가 2미터 정도에 뿔은 자그마치 3.5미터까지 자란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서 수컷들의 뿔이 너무 커진 것이다. 각 개개의 엘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큰 뿔을 갖는 것은 암컷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현명한 선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리쉬엘크라는 종족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선택은 그 집단에 치명적인 낭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환경이 조그만 나빠져도 멸종이라는 극단적 결과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러한 공작들의 경쟁을 죄수들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로 설명 할 수 있다. 죄수의 딜레

5) Why Are Economics Students More Selfish than the Rest?(Yoram Bauman, Elaina Rose, Forschungsinstitut zur Zukunft der Arbeit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December 2009) 참조.

마는 이성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지만 모두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열등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을 잘 보여준다.

한국의 교육 경쟁 역시 죄수들의 딜레마 게임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한국은 경쟁에 이기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으로 따지면 세계 1위일 것이다. 각 가정의 소득 중 많은 부분이 아이들이 커서 경쟁의 승자가 되기 위한 교육비로 지출한다. 교육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출하는 비용 중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비용도 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은 입시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그리고 직장을 잡기 위해 구직 경쟁, 직장 내에서는 진급 경쟁의 스트레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경쟁을 위한 경쟁은 공작보다 더 바보 같은 낭비를 초래하는지도 모른다.

경쟁에 이기기 위한 노력이 공작의 꼬리와 같이 제약을 더 키우고 낭비를 초래한다. 강자로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약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많은 물질적, 정신적 비용을 치르고 난 다음의 결과가 이익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는 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긴 사람들 역시 피해자가 된다. 모두 다 피해를 보는 경쟁, 이기고도 지는 경쟁, 그래서 바보들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경쟁을 신봉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서 자신이 승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승자가 되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지불했는지, 그리고 현재 무엇을 지불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4) 차등화 성장 논리로 잃는 것은 무엇일까? 보상 동기? 아니면 근원적 동기?

차등화 성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차등을 주는 금전적 보상을 통해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한다. 현재는 차등화를 통한 보상 동기가 지배하는 시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현대 경제는 보상 동기에 의해 움직이며, 교육이나 문화 등 사회 전체에 이 보상 동기의 영향이 깊숙이 퍼져있다.

오랫동안 보상동기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라고 여겼으며, 근원적 동기는 무시되었다. 그런데 1940년경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의 심리학자인 해리 하로우(Harry Harlow) 교수는 원숭이들로 하여금 어떤 간단한 작동을 하는 실험을 했다.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경우와 마른 포도의 보상을 주는 두 경우에 원숭이들이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가를 관찰했다. 놀랍게도 마른 포도의 보상을 주는 실험에서 원숭이들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와 비슷한 실험으로 카네기 멜론의 심리학자 데시는 두 집단의 대학생들에게 조각 맞추기 작업을 하게 한다. 그 실험은 3일에 걸쳐 아래 있는 표에 따라 실행했다. 집단 A와 집단 B, 두 집단에게 조각을 주고 특정한 모양이 되도록 맞추게 한다. 그리고 그들이 조각들을 맞추는 과정 중에 약 8분 동안의 휴식을 갖게 하는데, 아래 표는 이 휴식 기간에 두 집단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관찰한 결과이다. 첫날에는 집단 A와 B는 조각들을 맞추는 작업에 대한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았다. 8분 동안의 휴식 시간에 몰래 그들의 행동을 관찰했다. 아무런 보상이 없었지만 이 두 집단은 휴

식 중 모두 평균 약 3분 45초 정도의 조각들을 맞추어보려는 시도를 했다.

둘째 날에는 집단 A는 조각을 주어진 모양으로 맞추면 일정액의 돈을 지급하고, 집단 B는 첫날처럼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집단 A는 첫날보다 훨씬 많은 시간인 8분 중 약 5분 동안 맞추려 시도를 한다. 이는 제2 동기에서 말하듯이 금전적 보상이 집단 A의 학생들에게 조각 맞추는 일에 더 많은 흥미를 보이고, 또 실제로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상이 없는 집단 B는 전날과 비슷한 시간을 조각 맞추는 데 할애한다.

셋째 날에는 두 집단 모두 보상을 주지 않는다. 집단 B는 전날보다 약간 더 많은 시간을 조각 맞추는 데 보낸다. 그리고 집단 A의 경우 조각 맞추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 8분 중 단지 3분 정도만 시도를 한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금전적 보상이 주어진 집단 A의 학생들은 조각 맞추기 자체가 갖는 근원적 흥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둘째 날 더 적극적으로 조각 맞추기를 한 것은 금전적 보상 때문이고, 이런 보상 경험이 조각 맞추기라는 것 자체로부터 얻는 흥미를 사라지게 했으며 근원적 동기의 저하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집단 A

첫 날-보상 없음	둘째 날-맞추면 일정액 지급	셋째 날-보상 없음
평균 3분 45초 동안 시도	평균 5분 이상 시도	평균 3분 동안 시도

집단 B

첫 날-보상 없음	둘째 날-보상 없음	셋째 날-보상 없음
평균 3분 45초 동안 시도	평균 3분 45초 동안 시도	평균 첫 날과 둘째 날보다 약간 길게 시도

데시의 실험에서 나타난 보상 동기에 의한 근원적 동기의 저하는 어린이들에게도 나타 난다. 레퍼, 그린, 그리고 니스벳이란 세 심리학자 역시 금전적 보상 즉 보상 동기가 아이들의 그림 그리기에 대한 자체적 흥미를 사라지게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그림 그리기가 돈이라는 보상이 있어야 하는 하기 싫은 것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실험들에서 유추되는 재미있는 현상은 보상 동기와 근원적 동기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 근원적 동기의 저하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보상 동기는 결과에 의존하고 일의 과정이 무시된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생기는 만족 역시 무시된다. 예를 들면 등산이 좋아서 산에 가는 경우는 산행을 하는 행위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그러나 8천 미터 이상의 봉우

리 최초 14좌 등정과 같은 타이틀을 따기 위한 경쟁에서는 그 결과에 따른 보상 동기에 의한 등산이 된다. 결과에 따른 보상이 강조되고 그 행위 자체로부터 얻는 즐거움은 경시되어, 등산이라는 행위는 빨리 끝내야 하며 보상이 요구되는 고통이 될 것이다. 많은 위대한 예술 작품들이나 중요한 과학적 발견들은 보상 동기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돈으로 환산된 가치를 위하여 작품을 만들거나 연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갖는 근원적인 동기로부터 나온 것이다.

차등화 성장의 주장은 보상 동기에 근거한 것이다. 현재의 강도 높은 차등화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또는 앞으로 차등화 강화가 얼마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의 근래에 악화된 양극화 현상이 보여주듯이 차등화는 분배의 불균형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저임금자, 실업자, 가난한 은퇴자나 노인과 같은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약화나 무관심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5) 마지막 나무를 벤 이스터 섬 사람들과 한국의 고3 학부모들의 공통점은?

네덜란드의 탐험가인 로게벤이라는 사람이 1772년 부활절 일요일에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한 마치 모래더미처럼 보이는 이상한 섬을 발견한다. 이 섬이 바로 이스터 섬으로 놀라운 것은 이 섬에서 무려 887개의 돌로 된 석상이 발견된 사실이다. 큰 것은 높이가 20미터나 되고 무게가 270톤이나 된다고 한다. 그 많은 석상들이 변변한 나무 하나 없고 밧줄 하나 만들 재료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운반되었으며 세울 수 있었을 것인가. 2세기 넘게 여러 추측들이 나왔지만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그러나 근자에 학자들이 꽃씨를 분석해서 옛날에 이 섬에 어떠한 식물들이 얼마나 번성하고 있었는지를 밝혀내어, 이스터 섬이 원래 나무와 잡목 등 여러 식물들이 울창한 비옥한 곳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왜 지금은 것처럼 황무지인 섬으로 변했을까?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문명의 붕괴>에서 이스터의 비극을 부족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부터 찾는다. 공동소유인 자연 자원의 무분별한 사용은 부족 간의 경쟁 특히 석상 경쟁의 결과로부터 초래되고, 그 경쟁은 자원이 희소해지면서 더 치열해지고, 그 결과 자연의 완전 파괴와 그 사회의 붕괴라는 비극적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⁶⁾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그들이 망해가는 최후의 순간까지 자원을 낭비하면서 석상 경쟁을 했다고 추측한다. 여기서 비극은 다수의 개개인들은 서서히 사회 전체가 망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현행 교육 제도 하에서 각 개개인은 무력하게 참담한 현실을 지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

추측컨대 경제 상황의 악화와 함께 자원 확보 경쟁에서 각 개인들이 더 경쟁적으로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마치 한국의 교육 문제에서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사람들은 경쟁에서 이기고 지

6) Collapse: How Societies Choose to Fail or Succeed(Jared Diamond, Penguin, 2011).

는 문제에만 더 관심을 쏟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사회의 근본 문제 해결을 통하여 그 함정에서 벗어나려는 방법에는 관심이 없거나,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미 불가능하다고 여겨 포기한 상태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남은 단 하나의 선택은 싸워서 이기는 것뿐이다. 이스터 섬의 사람들 역시 자신의 자녀들에게 경쟁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살아가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쳤을까? 그 경쟁의 논리나 강자의 논리가 바로 자신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결국에는 파멸로 이르게 한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았을까?

공작의 꼬리 경쟁이나 아이리쉬엘크의 머리 뿔 경쟁 같은 바보 같은 경쟁으로 발생하는 비극은 우둔한(?) 동물의 세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비극은 우둔해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계산을 잘하는 이성적이고 이기적일수록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스터 섬의 예는 인간 사회가 갖는 바보들의 경쟁들 중 가장 비극적인 결과 중 하나 일 것이다.

입시 경쟁이나 취업 경쟁 등, 한국의 경쟁은 어떠한가? 이스터 섬의 사람보다 현명한 경쟁일 것인가?

6) 경쟁 강화가 생산성을 올릴까 아니면 떨어뜨릴까?

인간은 경쟁으로 부터 동기를 부여받고 라이벌 의식으로 더 열심히 더 잘하게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경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경쟁의 강도 상승이 실력이나 성과를 높이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그러면 만일 경쟁자의 수가 더 많아져서 더욱 경쟁이 심해지면,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 더 잘할 것인가 아니면 더 못하게 될 것인가? 이런 의문에 대답하기 위해 미시간 대학의 스테판 가르시아(Stephen Garcia) 교수와 이스라엘의 하이파 대학의 아비사롬 토르(Avishalom Tor) 교수는 연구를 통해 경쟁자의 수와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시험 성적 사이의 재미있는 상관관계를 발견하게 된다. 미국의 대학 입시 평가에 쓰이는 SAT 시험에서 시험장에 수험생 수가 많을수록 평균 점수가 떨어진다는 결과를 발견한 것이다. SAT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인 인식 반응 시험(Cognitive Reflection Test)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⁷⁾

경쟁자 수가 많을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수험생들

이러한 흥미로운 결과에 두 교수는 이 결과가 경쟁의 증가 때문인지 아니면 단지 시험장에 더 많은 수험생으로 많은 사람으로 주의가 산만해져서 생긴 결과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른 실험을 한다. 이 실험에서는 각 수험생이 혼자 시험을 보며, 각 수험생들은 경쟁 수험생의 수가 몇 명인지를 알려준다. 시험은 주어진 수의 간단한 문제들을 가능한 빠른 시간에 푸는 것이다. 수험생들의 절반에게는 경쟁 상대의 수가 10명이라고 말해주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100명이라고 말해주고,

7) 웹 사이트 http://www.economist.com/sciencetechnology/displaystory.cfm?story_id=13983332 참조.

시험을 완성하는 데에 경쟁 상대의 수가 10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0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빠르다는 결과를 얻는다. 경쟁자의 수가 더 많다는 생각만으로도 사람들의 성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경쟁자의 수가 많을수록 느려지는 달리기 선수들

이 두 교수는 또 다른 실험을 한다. 이 실험에서는 실험 대상이 가상 경주를 한다. 이 가상 경주에서는 함께 경주에 참가하는 사람의 수가 50명과 500명의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각기 경쟁자 수가 다른 이 두 가상 경주에서 실험 대상은 자신의 보통 달리는 속도보다 얼마나 더 빨리 달릴 것인가 하는 질문을 받는다. 이 결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50명 집단의 가상 경주에서 500명과의 가상 경주에서보다 더 빨리 달릴 것이라고 대답한다. 다시 말하면 경쟁자의 수가 많을수록 더 느려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것이다. 경쟁이 더 심해질수록 동기 부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두 교수는 실험 참가자들의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경향이 강한지를 심리학의 방법을 이용해서 측정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500명과의 가상 경주에서 더 낮은 점수를 얻는다는 상관관계를 얻는다. 즉 경쟁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경쟁이 강화되면 성과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 두 교수가 발견한 효과를 ‘n효과’라고 불렀는데, ‘n’은 경쟁자의 수를 나타낸다.

보통의 경우에 우리는 경쟁이 강화되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잘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반대인 셈이다. 특히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 즉 일반적으로 경쟁심이 강한 사람에게 그 반대 효과가 더욱 강하다는 점이다.

경쟁적인 사람은 실적이 낮다

보통 경쟁적인 사람의 실적이 높게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로버트 헬리치(Robert Helmreich)는 일에 대한 의욕이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경쟁적인 사람의 실적이 오히려 낮아진다고 한다. 그는 103명의 박사들에 대하여, 그들이 얼마나 경쟁적인지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경쟁성과 그들의 논문 인용에 따른 업적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작업 의욕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 경쟁성이 낮을수록 논문 인용의 정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비슷한 연구를 기업인들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그 결과 공부 의욕이 높은 대학생들의 경우에 경쟁성이 낮을수록 높은 성적을 거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MBA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경쟁성과 보수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여기서도 일의 의욕이 큰 사람들일수록 경쟁성이 낮은 사람이 평균 연봉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⁸⁾

8) Achievement Motivation and Scientific Attainment(Robert Helmreich, William Beane, William Lucker and Janet Sp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78) 222-226쪽.

아이들의 학업이나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예술 활동에서 있어서도 경쟁을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욕이나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미술대회를 상상해보자. 이기기 위해서 그리는 그림은 그냥 자신이 하고 싶어서 그리는 그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경쟁성이 높다는 의미는 자발적 동기에 의하여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쟁성을 높인다는 의미는 자발적 의욕은 저하시키고 이겨야하는 승부욕을 키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입시 경쟁에서 아이들이 하기 싫은 주입식 교육을 시키려니 경쟁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등수로 비교하고,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며 경쟁심을 자극한다. 경쟁성은 단기 효과를 얻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경쟁성 강화는 장기적으로 교육이나 학문에 필요한 진정한 흥미나 욕구를 키우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7) 우울증 증가는 경쟁강화 때문인가?

한국의 경쟁의 강조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을 소극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진취적이고 모험적이 되어서 실패해도 그들을 배려하는 사회가 아니라, 패자로서 낙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패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패자가 될지도 모르는 모험을 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선택을 하기 마련이다. 극단적 경쟁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고액 연봉의 강자로 성공하는 화려한 희망을 얘기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과는 별로 상관없다는 것을 알고, 삶의 기본을 보장해주는 안정된 직장을 갈망한다.

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성공해야하는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증가한다. 그리고 스트레스 증가는 우울증으로 발전될 위험이 있다. 고대 안암병원 정신과의 이화영 교수는 “성공이 개인의 행복에 있어서 최우선이 되는 시대에 살다보니 개인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경우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없으면 우울증이 생길 염려가 크다”고 말했다(카이스트 학생 자살 부른 ‘극심 경쟁 · 우울증’ 해결책은? 메디컬투데이 2011. 4. 9).

경쟁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불안감이 심할 경우 우울증에 이르고, 우울증은 극단적으로는 자살로 연결된다. 한국의 과열 교육 경쟁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우울증에 시달린다. 2009년 인천광역시 정신보건센터가 지역 중학생과 고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46.5퍼센트가 ‘우울 성향’을 보였다고 한다. 우울 증세나 자살 생각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810명을 대상으로 한 집중 검사에서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3.5퍼센트나 되었다고 한다. 가천의대 길병원 조인희 정신과 교수는 “입시 경쟁, 공부 스트레스……가 자살 발생 위험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한 정서 함양과 인지 발달을 저해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중고생 5명중 1명 ‘우울 · 자살 생각 위험군’ 연합뉴스 2011. 5. 5).

경쟁 때문에 사람들 상호 간의 긴장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긴장 증가가 불안감을 초래한다. 롤로 메이(Rollo May)는 경쟁이 불안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했다.⁹⁾ 경쟁 논리는 서로 돕는 공동체 의식의 약화를 가져오고, 각 개인인 고립된 존재로 전락해가는 불안감을 갖게 된다. 경쟁이 강화될수록 구성원들 사이에 라이벌 의식이나 적대감이 증가한다. 자신이 고립된 존재라는 상황에서 경쟁에서 실패하여 낙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불안하다. 그리고 롤로 메이는 높은 위계양 발병률이 종종 과도한 경쟁적 삶과 관련이 있다고 하며, 심리학자 허버트 헨딘(Herbert Hendin)은 높은 경쟁 압력이 젊은이들에 발생하는 자살률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¹⁰⁾

국민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성장을 위해서,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대학의 세계 순위 상승을 위해서, 무한 경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한국의 아이들을 위한 주장이 아니고, 한국의 직장인들을 위한 주장이 아닌 것이 틀림없다. 무한경쟁의 성장논리는 사람을 잃고 성장도 놓치는 바보들의 경쟁이 될 것이다.

2. 정신병, 자살, 입시 교육 등, 한국병의 원인으로서의 경쟁

1) 과도한 경쟁이 한국인의 생명력에 어떤 영향을 줄까?

낭만을 잃은 젊은이들

차등화를 통한 경쟁 강화로 자살률이 증가하고, 성적 욕구의 정상적 충족이 거부되고, 출산을 거부하는 부부가 늘고, 연애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구성원들의 생명력 약화를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혹독한 경쟁 상황에서 그들이 승리하여 얻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는 이유는 승리하면 더 소중한 무엇인가를 얻기 때문이 아닐 것이다. 패배의 불안이 그들로 하여금 한 생명체가 갖는 가장 소중한 것들까지 거부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닐까?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연애하기 힘든 사회에서 살고 있다. 대학을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는 많은 젊은이들은 시간도 없고 돈도 없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걸 바쳐도 힘든 현 상황에서 이제 연애의 열정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었다.

경쟁 사회에서의 성공을 위해 스펙을 쌓거나 자격시험 또는 기술 시험 준비를 위해 자신을 골방에 가두어야 하고, 관계 단절을 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열정이라는 존재는 방해가 될 뿐이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외로운 존재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로운 존재가 되지 않고서는 양육강식의 경쟁 논리로 무장할 수도 없고, 이해타산에 의한 계산을 할 수도 없다.

9) The Meaning of Anxiety(Rollo May Rev. ed. New York, Norton, 1977) 87-88쪽.

10) Suicide in America(Herbert Hendin, Norton, 1983) 3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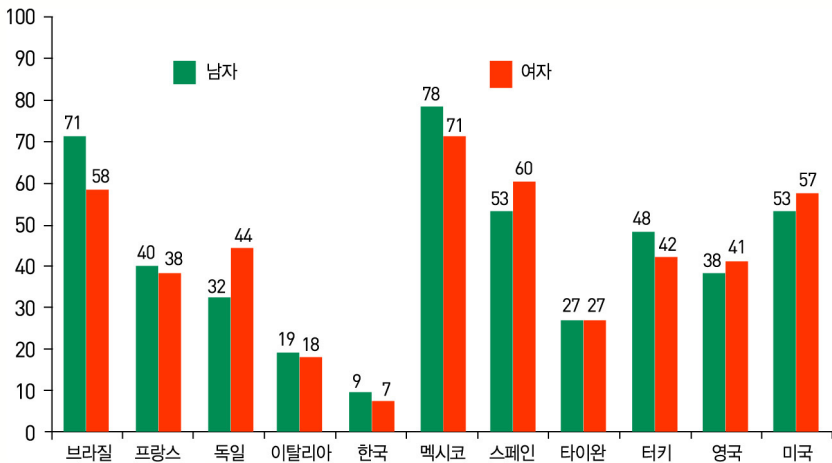
한국의 장래는 경제성장만으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숨 쉬는 사람들에 의하여 보장받고 이루어진다. 성장과 경쟁을 위해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것들인 꿈, 열정, 희망, 사랑을 희생 시켜야 한다면 그 성장은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섹스 산업에 이로운 그러나 성 만족에 해로운 경쟁

한국 사람이 경제성장으로 무엇을 얻었고 그 달성을 위해 무엇을 희생 했을까? 한국의 성공한 사람의 전형으로, 어린 시절 입시 경쟁이라는 힘든 10여 년을 견뎌내고, 대학에서의 학점 유지, 영어 습득, 스펙 쌓기 등등의 경쟁에서 이겨 좋은 직장을 잡아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성공한 사람이 보상으로 받는 높은 연봉과 함께 주어지는 또 하나는 10퍼센트라고 하는 확률의 성 만족도이다(대한민국 성인남녀 性생활 만족도, 아·태 13개국 중 12위 화이자 2009. 2. 13 그리고 Pfizer Global Better Sex Survey(GBSS)).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아래 표가 보여주듯이 거의 세계 최저 수준이다. 가까운 나라 대만과 비교해 봐도 대만 남자는 성 만족도가 한국 남자보다 3배, 여자는 약 4배 정도 더 높다. 그리고 성 만족도가 높은 멕시코와 비교하면, 멕시코 남자는 한국 남자보다 성 만족도가 8배 높고, 여자는 10배 정도 높다.

주요 국가의 남녀 성 만족도



한국의 직장인들은 세계에서 일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저녁 식사 후에도 직장에 남아서 야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회사 회식 등으로 밤늦게까지 가정에 돌아가지 못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시달리

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성 만족도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실이 아닐지 모른다. 아마 이런 놀라운 사실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일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운 뿐이다.

성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90퍼센트가 넘는 한국인들의 불만은 그들의 성적 욕구 발산을 위한 소비에서 잘 드러난다. 영국 BBC방송이 발행하는 과학기술 전문 월간지 『포커스』에서 세계 3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한국이 포르노 산업에 대한 국민 1인 당 연간 지출액이 경제 수준 대비 가장 높았다고 한다(포르노산업 지출 1위 한국은 ‘정욕의 나라’ 경향신문 2010. 10. 25).

한국은 일인당 섹스 산업에 대한 소비가 세계에서 가장 높지만, 섹스의 만족도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는 나라가 되었다. 성적인 욕구가 거부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돈 벌고, 거부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 돈을 써보지만, 그 욕구의 충족은 상품과 같이 쉽게 시장을 통하여 구입되는 것이 아니다. 성장의 대가로 시장을 통한 섹스 서비스의 소비 증가를 가져 왔지만, 그 소비의 증가는 만족의 증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만족의 증가를 나타낸다.

출산을 거부하는 한국 여성들

한국의 출산율이 1970년 4.53명에서 2003년 1.19명으로 같은 기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한국 출산율 감소 폭 선진국의 3-8배 - 중앙일보 2005.11.29). 보통 소득 수준의 상승과 함께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의 출산율 감소는 다른 나라들이 비슷한 소득 수준 상승에 준하는 출산율 감소보다 훨씬 급격하게 진행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한국의 이러한 특이한 출산율 감소의 중요한 원인은 자녀들과 함께 함으로써 갖는 근본적 행복감의 소멸이 아닌가 의심된다. 자녀를 키우는 일이 고통이 되며, 자녀의 불확실한 미래는 그들에게 희망이 아니고 불안이다. 이러한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학부모들은 모든 것을 입시 경쟁에 희생하고 가계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교육비를 지출한다. 이제 그 양육 부담이 너무 커서 아예 출산을 거부하거나 한 자녀만 갖는 부부가 늘어난다.

경쟁과 성장의 강조로 생명체가 갖는 기본적 본능까지 거부하게 하는 기이한 상황은 그들의 연애 열정을 통제하도록 강요하고, 성적 욕구를 억제한다. 그들이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자손 번식의 기본 욕구는 교육이라는 사회적 압력에 의하여 통제된다.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은 몇 배로 올라갔지만, 자식을 키우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가정의 수는 그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제 자식 하나 교육시키기도 벅차게 되어, 아예 출산을 거부하는 사회가 되었다.

극단의 차등화, 경쟁, 효율, 성장, 세계화를 강조하여 달성되는 사회는 경제성장 이상으로 자살률이 성장하는 사회, 포르노 소비는 늘지만 성 만족도는 줄어들고 연애의 열정은 거부되는 사회, 국민소득은 높아지는데 사교육비 부담으로 출산을 거부하는 사회가 아닌가? 생명력까지 거부하게 만드는 과도한 경쟁 사회에서 인간이 보전하고자 하는 그 어떤 가치 있는 것이 남게 될 것인가?

2) 심심해질 수 없는 사회는 좋은 사회인가?

일 많이 하는 한국 직장인들이 잃는 것 중의 하나가 심심해질 수 있는 여유다. 기계가 사람과 다른 점의 하나는 심심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계는 스위치가 꺼져 작동이 멈추기는 해도 심심해하지는 못한다. 경쟁이 강화된 사회는 사람들을 생산성에 의하여 판단하기에 바쁘게 일하는 가치만을 강조한다.

한국의 직장인들은 세계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의 직장인들은 2008년 기준으로 연평균 2,256시간 일을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직장인들의 연평균 노동 시간이 1,764시간과 비교하면 한국의 직장인들은 약 400시간, 또는 1년에 50일 정도를 더 많이 일하는 셈이다.

심심하다고 할 정도의 여유가 구성원에 주어진 사회, 또는 그런 여유 있는 삶이 주어진 사회에서 새로운 창조적인 것이 탄생할 수 있다. 유명한 예술가, 과학자, 발명가, 철학자들의 중요한 작품이나 새로운 이론의 발견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의 내부적 욕구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허락하는 환경이 중요하다. 그들이 과도한 경쟁에서 주어진 학업 과제나 업무로 시간에 쫓기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자기개발을 해야 하는 생존의 압박감 아래 생활을 했다면 천재성의 발휘는 고사하고 자신의 진정한 흥미나 욕구를 발견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그들과 같이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현재 강요되는 경쟁이라는 압박 아래에서 그 천재적 재능을 과연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는 천재적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죽여야만 살아남는 사회가 된 것은 아닌가?

심심할 정도로 여유가 있다는 것은 일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는 것이 아니다. 여유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며,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선택한 것을 더 열심히 한다.

심심할 정도의 여유가 필요한 사람들은 역사상 유명한 천재들뿐만이 아니다. 오히려 다수의 보통 사람들에게 그러한 여유가 절실히 필요하다.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잡생각 또는 딴 생각도 할 수 있는 여유도 필요하다. 가끔 뒤돌아보고 주위도 한번 살피는 여유는 심심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만 한다. 심심해질 수 있는 여유를 잃게 되면 사람은 자신과의 대화, 자녀나 가족과의 대화, 직장 동료, 친구나 연인과의 대화, 또는 자연과의 진정한 대화 역시 잃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꼭 짜인 학업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시간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강요된 일률적인 입시 경쟁의 삶 속에서 얻는 것은 점수와 서열이고, 잃는 것은 심심해 할 수 있는 여유다. 이러한 심심해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사색이나 회의의 시간도, 친구나 가족과 갖는 조건 없는 교류도 잃게 된다. 사색의 시간이 박탈된 아이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과 친구들 사이의 우정을 주고받을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결여된 사회에서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서적 안정을 얻기 힘들 것이다.

인간이 기계와 다른 점 가운데 하나는 나태할 수 있는 능력이다. 기계는 나태해질 수 없을 뿐더

러 그럴 필요성도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 존재 의의는 기계 자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나타나는 생산성과 같은 결과로 평가한다.

우리는 기계와 얼마나 다를까? 우리 역시 거대한 그러나 획일적 가치에 기초한 프로그램에 따라야 하고, 그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는 물질의 생산성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즉 기계와 같이 우리의 존재 의의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다고보다는 물질 획득 능력에 따른 순위 경쟁의 결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닌가? 세계에서 가장 일 많이 하는 한국의 직장인들, 그리고 세계에서 학교와 학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의 삶은 과도한 경쟁이 강요한 심심해질 수 있는 여유가 거부된 삶이고, 타의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계와 마찬가지로 자신이라는 주체가 상실된 삶이 아닌가?

3) 경제 성장률과 자살 성장률은 상관 관계가 있는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은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약 20년 동안 또 하나의 초고속 성장의 기록을 달성한다. 바로 자살률 40퍼센트 증가라는 참담한 세계에서 보기 드문 고속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은 인구 십만 명 당 22명이 자살하는 국가로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2009년에 하루 평균 40명이 자살했으며 이는 2008년에 비해 약 20퍼센트가 증가한 것이다(이코노미스트, 2010 7월호).

경쟁이 강화될수록 높아지는 자살률

한국 사람들의 자살률이 전시의 병사들의 자살률보다 약 40퍼센트 높다는 사실은 현재 한국인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전시의 병사들이 받는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에밀 듀카임(Emile Durkeim)의 연구에 따르면 공동체의 해체와 사회의 유대가 약화될수록 자살이 증가한다고 한다.¹¹⁾ 차등화를 통한 소득 불균형은 서열 형성과 함께 서열 소비와 경쟁 증가를 초래한다. 경쟁 증가는 개인을 고립시키고 사회의 구성원 간의 불신이 커지게 한다. 개인이 고립되고, 공동체의 유대가 약화되어, 우울증이 증가하며, 듀카임의 연구 결과와 같이 자살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로버트 레인(Robert Lane)은 과중한 직장 일로 인한 여가 감소와 소비문화가 우울증과 공동체 유대 약화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산업화와 소비문화 이전에는 우울증을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었다. 예를 들면, 뉴기니의 칼룰리 족에게는 절망, 우울증 또는 자살 등은 알려지지 않은 현상들이라고 한다.

과도한 교육 경쟁과 구직 경쟁 등 경쟁 위주의 사회에서는 서열에 의해 가치가 형성되고 승자와 패자가 필연적으로 구분되게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될 수는 있어도 모든 이가

11) The Health of Nations: Why In equality Is Harmful to Your Health(Ichiro Kawachi, Bruce P. Kennedy, The New Press, 2002) 122쪽.

일등하고 모두 일류 학교에 갈 수는 없는 것이다.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작품에 만족을 할 수는 있어도 모두가 사생대회에서 1등을 할 수는 없다. 한국 사회의 평가에 의한 서열의 강조는 비교 우위나 등수 외에는 다른 가치가 발 디딜 틈이 없게 만든다. 구성원들이 그 유일한 평가 기준에 미달되었을 때 그들은 절망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1980년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소득 또한 크게 증가했다. 같은 시기에 자살률 역시 국민소득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신속한 성장을 거듭해왔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전체 자살자의 50퍼센트에 가까운 사람이 경제적 이유에서 자살을 한다는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느는 시기에 오히려 경제적 이유로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이는 경쟁 증가가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경제를 더 성장하게 함으로써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거짓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더 많은 사람이 불행해졌다.

경쟁 사회에 진출을 대비하는 학생들은 먼저 입시 경쟁에 시달린다. 구직 경쟁에서의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려면 먼저 입시경쟁에서 성공해야 한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 하더라도 입시 경쟁에서의 성공을 강요한다. 등수를 올리는 것 말고는 다른 가치란 찾을 수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야 하는 많은 아이들이 삶의 가치마저 잃어간다.

4) 한국은 차등화 강화로 계급 사회가 되어 가는가?

경쟁의 강화를 위한 차등화 정책은 소득 불평등으로 나타난다. 소득의 양극화는 교육의 양극화와 그에 따른 기회의 양극화로 연결되어 아이들은 갖고 있는 재능이나 욕구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역시 불평등하게 주어지는 사회로 만든다. 기회의 양극화로 미래 세대의 소득이 대물림 되어 결국 양극화의 대물림, 또는 계층 고착이라는 또 다른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계층의 고착화가 심한 사회를 계급 사회라고 부른다. 차등화의 강화로 명품을 소비하는 귀족 계층, 그 귀족을 따라가야 하는 중산층, 그리고 소외된 계층 등이 대물림되는 사회로 역행한다.

차등화, 계층 이동성 그리고 계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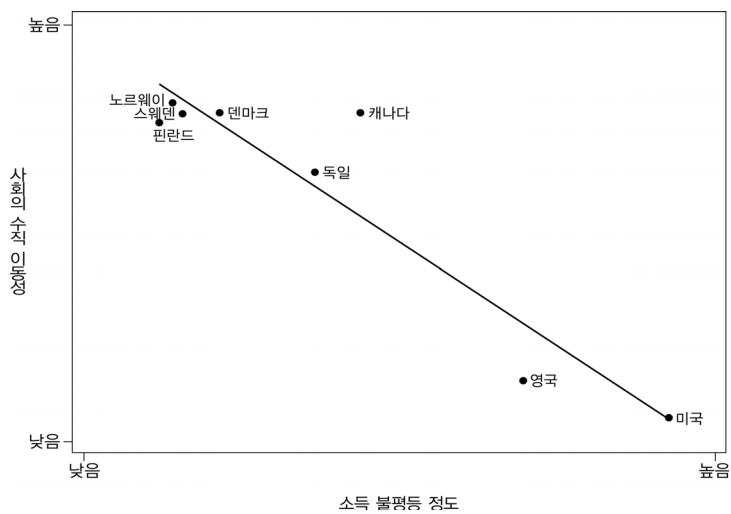
계층의 고착화는 소득이 불평등할수록 더 심각해진다. 경제학자 브란덴은 아버지와 그 아들들의 소득을 비교하여 소득 분포와 수직 이동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소득 불평등이 심할수록 수직 이동성이 악화되어 소득에 따른 계층 고착화가 심화된다.¹²⁾

재미있는 현상은 기회의 나라라는 미국의 사회 계층 이동성이 가장 낮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저소득층의 자녀로 태어나면, 자라서 그 자신이 저소득층에 속할 확률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높다는 것이다. 미국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진 나라로, 소위 아메

12) The Spirit Level(R. Wilkinson, K. Pickett, Bloomsbury Press, 2009) 160쪽.

리칸 드림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이라고 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아래 도표가 보여주듯이 실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낮은 곳이 미국이고 노르웨이가 가장 높다. “기회의 나라”라는 미국에서의 기회는 아마 고소득층에만 해당하는 기회인 것 같다.

차등화가 강화됨으로써 계층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소수에게 주어져 인재 활용이 안 되어 인력이 낭비되고, 차별 대우로 사회 유대가 약화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 사회에 막대한 비용을 소모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소득 양극화와 교육 양극화

한 사회의 수직 이동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다. 교육이 부모의 재력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 이를테면 공교육이 그 기능을 잘 발휘하고 사교육의 영향력이 적은 경우에, 교육이 부의 대물림을 상쇄한다. 즉 교육을 통하여 계층 고착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과 같이 사교육의 영향력이 크고, 그 비용 또한 소득의 수준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날 경우에 아이들이 받는 교육 역시 격차가 더욱 벌어져 교육이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고소득층의 자녀들은 더 높은 교육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들 자신이 고소득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층 고착화로 연결되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의하면 아버지와 자식 간에 있어서 월평균 임금의 대물림에 교육이 48.2퍼센트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 김희삼 부연구위원은 “부모의 사교육비 지출 능력 차이가 자녀의 학력 격차를 낳고, 다시 자녀세대의 소득 격차로 이어져 부의 대물림

이 교육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개천의 용’ 키우던 교육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경향신문 2009. 12.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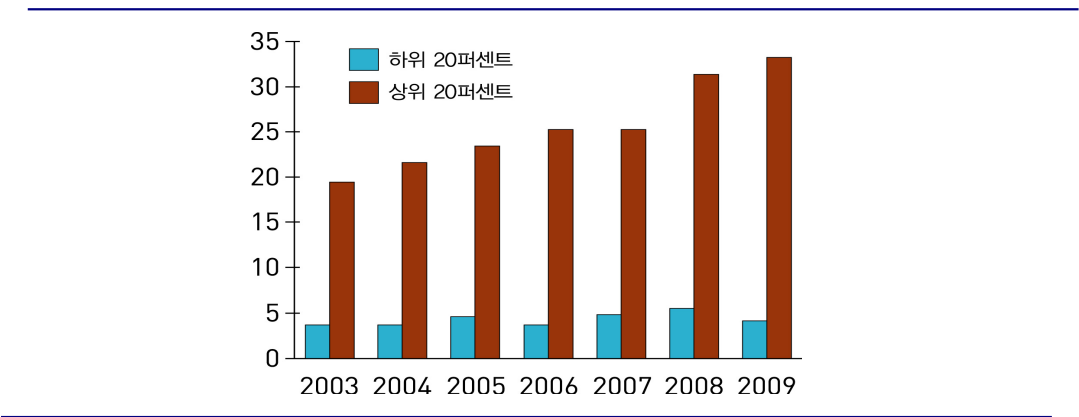
교육이 부자간 경제력 대물림에 미치는 비중

• 월평균 임금	48.2%
• 월평균 소득	43.2%
• 가구 연소득	46.9%
• 가구 순자산	24.5%

자료: KDI.

아래 표는 소득 상위 계층 20퍼센트의 사교육비 지출과 소득 하위 계층 20퍼센트의 사교육비 지출의 격차와 연도별 변이를 보여준다. 2009년 1/4분기에서 3/4분기 도시 가구의 월 평균 학원비 지출액을 보면, 소득 상위 20퍼센트는 332,511원으로 소득 하위 20퍼센트의 42,715원에 비해 8배가량 높았다.

소득별 사교육비 지출의 연도별 변화



차등화의 강화로 소득 불평등은 악화되고 입시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되어, 사교육비 지출 역시 가계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소득의 양극화가 사교육에 의한 교육의 양극화로 연결되어 계층 고착화 문제는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교육의 양극화로 미래 세대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많은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이나 소질을 개발하고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낭비되고 있다. 이러한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재능의 낭비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강도 높은 차등화가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5) 차등화가 정신 질환을 증가시킨다?

소득 수준과 정신 건강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경제성장으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해 질 것인가? 한국의 경우에는 경제성장과 함께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증가했다.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소득 차등화를 통하여 경쟁을 강화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로 소득 평등화를 통하여 경쟁을 완화해야 할 것인가?

차등화로 고용 불안 조성

한국에 있어서 차등화를 강화하자는 주장은 쉽게 말해 직장인들의 불안감을 더 높이자는 말과 같은 것이다. 직장인들이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해야만 과중한 업무도 묵묵히 수행할 것이다. 차등화가 전체적인 효율은 높여서 경제성장을 돕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효율이란 이러한 불안에 기초하여 더 많은 일을 적은 인원으로 또는 더 작은 비용으로 달성함으로써 이윤을 증가시키는 것을 뜻한다. 물론 경제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효율은 아닌 것이다. 두려움에 기초한 압박으로 노동의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높이는 전략은 착취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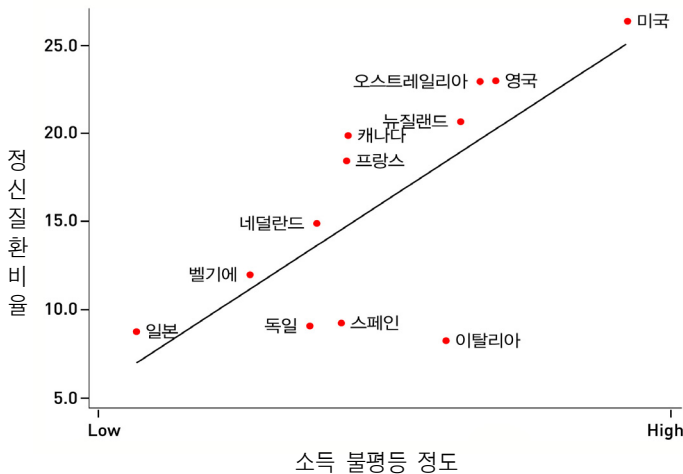
노동을 자유 시장의 거래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 한국의 직장인들의 10명 중 6명이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한다는 사실과, 직장인 63퍼센트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부터 이해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 시장은 경제 이론에서 이야기하듯이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완전고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이다. 예를 들면 같은 노동력을 제공하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정규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비정규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실업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차등화의 강화로 첫 번째 피해를 보는 사람으로는 실업자나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들은 시장에서의 거래 가치로 판단하면 중요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차등화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실업자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본보기로서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규직 직장인들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실업자가 되는 것만은 피해야 하는 이유가 되고, 실업자로 전락하면 기본적인 삶이 위협받고 사회적으로 멸시받게 되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자녀의 입시 경쟁에서 모든 걸 희생해야 하는 동기 부여가 된다. 자신이 실업자가 되면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 없게 된다.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가 커서 그렇게 될까 더욱 더 불안해한다.

정규직 직장인들도 피해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실업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불안감 증가로 회사들은 직장인들로부터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극도의 불안감은 직장인들이 불평 없이 부당한 대우에도 열심히 일하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 차등화가 야기하는 유인 제공인 것이다.

차등화로 정신병이 증가 한다

차등화의 강화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으로 연결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 분배가 불평등해질수록 정신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한다. 아래 그림은 소득 불평등이 커질수록 정신 질환이 증가한다는 것을 명확히 나타낸다.¹³⁾



한국 역시 차등화의 강화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경쟁의 강도도 역시 높아졌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이 늘어났다. 업무 자체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2009년 한국의 정규직 직장인 10명 중 6명 정도가 직장을 잃을지 모르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한다. 고용 불안을 느끼는 정규직 직장인은 2006년의 약 45퍼센트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약 58퍼센트로 3년 만에 13퍼센트나 증가했다(정규직 10명 중 6명 “고용 불안감 느껴” 머니투데이 2009. 9. 8).

이러한 고용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는 건강을 해치며 정신적 질환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불면증 또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정신질환 그리고 성장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우울증을 겪게 한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의 미시간 대학의 사라 버가드(Sarah Burgard) 교수가 발표했다. 직장을 아예 잃은 사람보다도 더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이것이 흡연이나 고혈압보다 더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한 직장

13) The Spirit Level(R. Wilkinson, K. Pickett, Bloomsbury Press, 2009) 67쪽.

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영국의 런던 대학의 타라니 찬돌라(Tarani Chandola) 교수는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코르티솔을 많이 분비하여 심장병에 걸릴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 코르티솔이라는 분비액은 고혈압과 복부 비만, 면역 능력 저하와 대사 장애를 일으킨다고 한다. 또 초과 근무를 하는 직장인들 역시 불안 장애나 우울증이 발병하기 쉽다고 한다.¹⁴⁾

차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으로 고통 받는 직장인들은 그들이 심적으로 유약하기에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그들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희생으로 여길 것이다. 현재 직장인 대다수(62.9퍼센트)가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사회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각 개인의 유약함으로 보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구성원 다수가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사회에서 차등화를 더 강화하면 성장 동력이 높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저하될 것이다. 설사 차등화의 강화가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수 직장인들의 정신질환을 초래하는 그러한 성장의 강요는 다시 생각해야 마땅한 것이다.

6) 왜 소득 분배가 불평등할수록 광고가 증가하는가?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차등화가 잘 진전된 사회일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 소득 분배가 불평등할수록 소득의 서열 경쟁이 심해지고, 따라서 소비의 서열 경쟁이 심각해진다. 그리고 서열 소비가 증가할수록 이득을 보는 두 집단은 명품업체와 광고업체일 것이다.

소비문화의 강도를 측정하는 척도의 하나로 광고 지출을 들 수 있다. 소비문화의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광고 지출이 많아진다는 것이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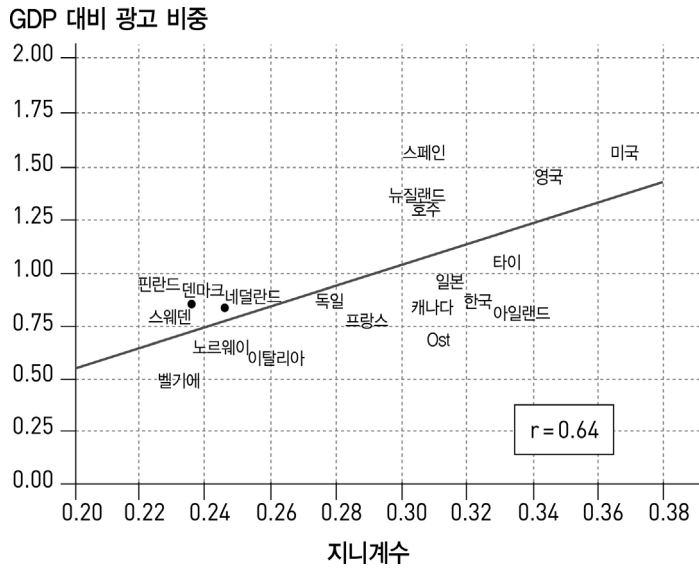
소득이 불평등해질수록 소비의 서열 경쟁이 심해지고 서열 상품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여 그 시장의 규모가 확대된다. 현재 한국 경제의 분배의 양극화로 인하여, 부익부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소비 형태 역시 변화해왔다. 소비의 양극화는 재래시장과 마트 등의 매출이 줄어드는 동시에 백화점의 사치품(명품) 매출은 증가하는 현상에서 볼 수 있다. 2008년 한 보도에 의하면, 불경기 중에서도 사치품 판매는 호황을 이룬다고 한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대형마트 매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0.7퍼센트 감소하면서 9월(-9.2퍼센트)에 이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 달 백화점 매출은 명품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1퍼센트 증가...”(경기침체 속 ‘소비 양극화’ 심화 된다 이투데이 2008. 11. 19).

14) 직장인 건강을 해치는 원인은 ‘고용불안’ 스트레스 ‘<http://blogs.kormedi.com/3284> 코메디닷컴 뉴스 참조.

15) The Health of Nations: Why Inequality Is Harmful to Your Health(Ichiro Kawachi, Bruce P. Kennedy, The New Press, 2002) 75쪽.

생필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사람은 늘어가는 반면 사치품 구입은 늘어가는 분배 구조의 악화된 일면을 보여주는 현상이라 볼 수 있겠다.



명품 소비는 소비의 등수 경쟁

명품을 소비함으로써 오는 만족감은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그리고 과시함으로써 오는 만족감의 이면에는 상대적으로 소비를 할 수 없는 사람들과 그런 소비를 못해서 오는 실망감이 필연적으로 존재해야만 한다. 명품의 가격에 따라 상하관계(등수)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자신에 대한 평가는 그 서열에서 등수로 결정된다. 소비 경쟁에서 승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서열 소비에 사용되는 지출 역시 한국의 직장인들이 고생해서 얻은 소득으로부터 나온다. 만약 소비의 중요한 부분이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서열 소비라면 성장의 대가로 증가한 많은 자원이 또 다른 경쟁에 낭비 된다는 것이다. 소득 불균형의 해결 없이는 경제성장을 해도 이러한 낭비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서열 소비는 등수를 위한 소비로 소득이 균등화 할수록 그 수요가 감소할 것이고 그에 따른 막대한 국가적 낭비 역시 줄어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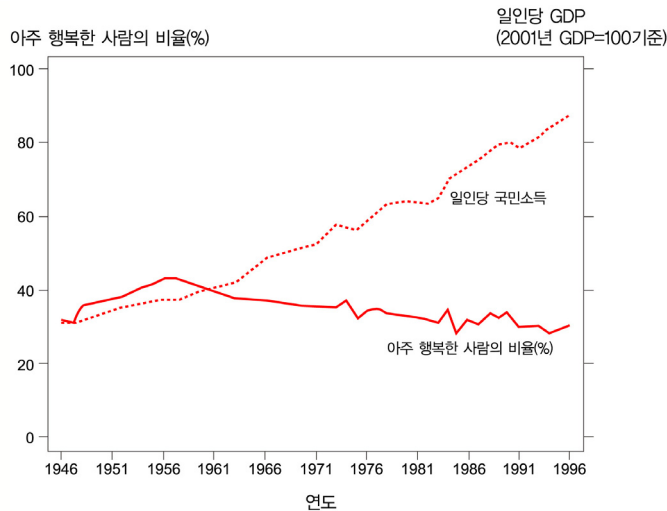
소득의 불평등이 강하면 강할수록, 서열 경쟁이 심해질수록 그에 따른 서열 소비의 욕구 역시 증가한다. 그래서 경쟁을 위한 소비, 낭비가 되는 소비가 증가한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 경쟁과 취업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그렇게 얻은 소득을 또 다른 경쟁인 소비 경쟁에 낭비하는 바보들의 경쟁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3. 상대소득, 경쟁 완화 그리고 행복

1) 행복은 돈으로 구입 가능한가?

우리는 경제가 성장하고 일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전반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아래 도표는 소득의 증가가 행복과 별반 상관이 없음을 보여준다.¹⁶⁾

미국의 행복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위 그래프는 미국의 GDP는 꾸준히 성장하는 반면 아주 행복하다고 한 사람들의 비율은 1950년대를 전후 약간 상승하고 그 후에는 하강, 또는 정체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은 1950년 이후 일인당 소득은 6배 이상 증가하지만 행복 수준은 별 다른 변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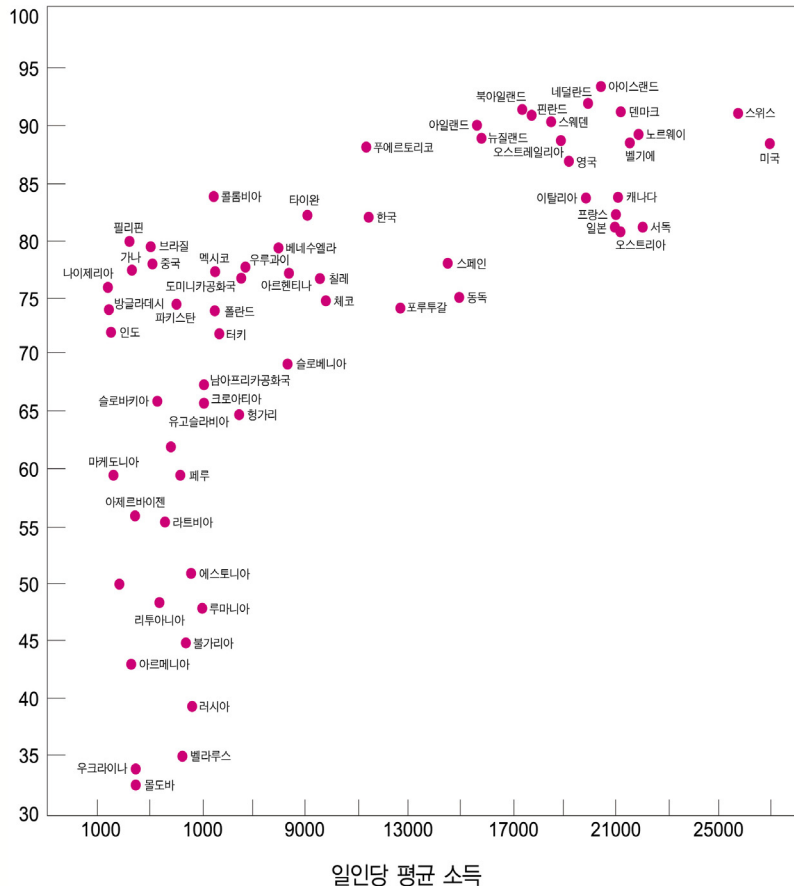
소득이 낮은 단계에서는 소득 증가가 행복의 증가로 나타나지만, 소득이 만 달러에서 만 5천 달러 이상이 되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행복은 증가하지 않고 거의 정체된다. 한국의 경우 역시 성장하면 행복해지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이제 더 성장하면 더 행복진다는 단순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¹⁷⁾

16) The Health of Nations: Why Inequality Is Harmful to Your Health(Ichiro Kawachi, Bruce P. Kennedy, The New Press, 2002) 33쪽.

17) What is happiness? Are we getting happier?(Inglehart and Klingemann, Lionel Robbins Memorial Lectures 2002) Figure 7.2 and Table 7.1.

소득과 행복의 관계

행복 수준



경제학에서는 소득이나 성장만을 강조하며, 소득이 오르면 구성원들이 당연히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다.

행복 증진과 소비 증진은 동일한 것이 아님에도 그저 더 많은 소비를 보증하는 경제성장만이 강조된다. 그래서 경제는 성장하는데, 즉 GDP와 같은 계산에 의한 물질 소비는 증가하는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못한다.

조사 자료에 따르자면 포브스의 어느 400대 부자와 동아프리카의 어떤 목동이 같은 정도의 행복감을 갖는다고 한다. 물질의 풍요를 가늠하는 척도로 자주 쓰이는 소득과 인간의 만족의 수준을 나타내는 행복은 상관관계가 별로 강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 간 비교에 의하면, 독일과 일본이 아일랜드보다 두 배의 높은 GDP를 보이고 있지만, 행복지수는 오히려 낮다.

2)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건 절대소득? 아니면 상대소득?

한 가지 모순되는 발견-절대소득과 상대소득

상대적 부의 개념은 나의 소득과 비교해서 주위 다른 사람들의 소득을 고려하는 것이다. 한 국가의 일인당 평균 소득 수준이 약 1만 5천 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절대소득이 중요하다고 한다. 즉 1만 5천 달러 미만인 경우 소득의 증가가 곧바로 행복의 증가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소득이 1만 5천 달러를 넘어서면 절대소득 증가는 장기적으로 볼 때 행복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는 상대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의 국민소득은 1970년대 말에 1천 달러 수준에서 2007년에는 거의 2만 달러로 치솟았다. 그러면 한국 사람의 행복 수준은 얼마나 올라갔을까? 그리고 앞으로 4만 달러 목표를 달성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 대답은 부정적이다. 아래의 <표 1>은 미국의 사례이다. 이 표가 보여주듯이 GDP가 꾸준히 상승한 1975-1996년 사이 미국 사람들의 행복 수준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¹⁸⁾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두 표를 더 보도록 하자. <표 2>와 <표 3>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대체로 더 행복해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표 1>은 행복이 소득 증가와 관계없이 일정하고, <표 2>와 <표 3>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행복함을 느낀다고 한다. 그러니 “보수가 올라가면 더 행복해진다”와 “보수가 올라가도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두 상반된 주장이 모두 맞는 것이다. 이 두 모순되는 현상은 왜 생기는 것일까?

이러한 현상은 절대소득과 상대소득의 차이점에서 발생하며, 상대소득이 왜 행복에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표 1>에 따르면 1996년과 1970년 사이에 절대소득은 증가했지만 행복은 크게 변화가 없다. 즉 절대소득의 증가는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표 2>는 1975년의 상대소득의 차이에 따른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구분에 의한 설문조사이다. 그 표는 상대소득이 높을수록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기서 절대소득보다는 상대소득이 행복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소득의 차등화가 강화되어 서열이 강조된 사회에서는 상대소득, 즉 소득의 서열이 행복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상대소득과 건강

마이클 마뮷(Michael Marmot)은 한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건강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돈이 상대적으로 많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 건강하고

18) What is happiness? Are we getting happier?(Lionel Robbins Memorial Lectures, 2002).

오래 산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지위 증상’이라고 부른다. 소득의 비교, 교육 정도의 비교, 부의 비교 등으로 서열이 정해지며, 그 서열에서 어느 위치에 속하는가 하는 지위에 따라 건강 또는 수명이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이다.

<표 1> 행복의 분포

(단위: %)

	1975	1996
아주 행복하다	32	31
행복하다	55	58
별로 행복하지 않다	13	11
	100	100

<표 2> 소득 분포에 따른 행복의 분포(1975년 미국)

(단위: %)

	상위 25퍼센트	하위 25퍼센트
아주 행복하다	39	19
행복하다	53	51
별로 행복하지 않다	8	30
	100	100

<표 3> 소득 분포에 따른 행복의 분포(1998년 미국)

(단위: %)

	상위 25퍼센트	하위 25퍼센트
아주 행복하다	37	16
행복하다	57	53
별로 행복하지 않다	6	31
	100	100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보다 건강하지 않은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써, 또는 그들이 갖는 나쁜 생활습관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건강에 미치는 여러 요인들, 의료 혜택, 유전 요소, 나쁜 습관 등을 고려해서 그 영향을 모두 제거한 후에도 사회적 지위에 따라 건강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어째서 지위 자체가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

여기서 비교는 단지 부자와 가난한 두 집단의 비교만 하는 것이 아니다. 부자라도 더 큰 부자가 오래 산다는 것이다.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작은 집에 사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며, 대학 원을 나온 사람이 대학만 졸업한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것이다. 10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5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보다 오래 산다는 것이다. 50평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

역시 넓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의료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왜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보다 일찍 죽어야 하는가?

마뚤은 그 이유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자율권이 얼마나 주어지고, 또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주어지는가에 따라 건강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자율이 주어지고, 더 많은 사회 참여와 통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 반대로 지위가 낮을수록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자율권이 적어지고, 사회 참여에서 배제될 확률이 높아진다. 직장이나 가정, 또는 친구나 친척들과 지내는 일상에서, 우리 자신이 통제력을 잃거나 약화되면, 쉽게 말해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듯이 사회에서 ‘갑’이 아니고 ‘을’의 입장이 된다면, 우리들의 스트레스는 증가하기 쉽다. 우리는 주위에서 친구나 친척들의 모임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는 돈 많이 버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직장에 다니거나 실업자인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이나 주위 사람들이 대하는 대우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경험한다. 개인이 갖는 자부심이나 자각지심, 그리고 타인에 대한 차별 대우는 소득 불평등과 같은 서열 형성을 전제로 한다. 소득의 격차가 커질수록 자신이 그 서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지위에 대하여 강한 인식을 갖게 된다. 타인들과의 비교에서 결정되는 위치에 따라 자신의 지위가 결정되며, 이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이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함께 육체적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왜 강남 부자보다 강북 부자가 행복한가?

만약 현재 어떤 사람이 연봉으로 4000만 원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8000만 원을 받는 상황과, 2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같은 사람이 연봉으로 3000만 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1500만 원을 받는 상황을 비교해보자. “당신은 만족합니까(행복합니까)?” 하는 질문에 3000만 원은 절대 액수에서 4000만 원보다 낮지만 과연 어떤 대답은 나올 것인가? 아래 조사 결과는 상대 소득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버드 대학의 어느 과의 학생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A와 B중 어느 것을 더 좋아 합니까?

- A. 당신은 연봉 5만 달러를 받고 다른 사람들은 그 반을 받는다.
- B. 당신은 연봉 10만 달러를 받고 다른 사람들은 그 배를 받는다.

이 질문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이 A를 B보다 더 좋아한다고 대답했다. 대부분이 절대적 액수가 적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상황을 선택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연봉이 올라가고, 자신의 연봉이 그대로라면 매우 실망하고 불쾌해 하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을 주위 사람들의 소득과 비교하며 그 상대적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 예

를 들면 강남의 부자보다 강북의 부자가 더 행복하다고 한다. 이는 강남에는 부자가 많아서 강남 부자는 강북 부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가난하게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남부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강북 부자보다 더 많은 부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에 상대방의 연봉을 물어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례한 행동에 속한다. 연봉 계약은 대부분 회사와 당사자 사원 사이의 비밀이다. 만약 어느 한 사원의 월급을 올려주고, 그 사실을 모든 사원이 알게 되면, 그렇지 않은 다른 사원들의 불만이 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족 내에서 배우자의 연봉이 자신보다 높은 사람은 자신의 일에 더 불만이 크다고 한다. 독일의 통일로 동독인들의 소득 수준은 올라갔지만 그들의 행복 수준은 떨어졌다고 한다. 이는 통일 후에 증가한 소득이 그들의 행복을 높이는 정도가 서독인들의 소득과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불만을 능가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마이클 해거티(Michael Hagerty) 교수는 311개의 지역의 소득 분배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¹⁹⁾ 그가 이 조사에서 발견한 것은 최고 소득이 높은 지역일수록 사람들의 행복 수준이 낮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동네에 큰 부자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불행해진다는 것이다. 사회에서 소득의 분배가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한다 하더라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도로 심화되면, 소득 증가에 따른 행복의 증가가 상대소득에 따른 행복 감소로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소득과 행복-한국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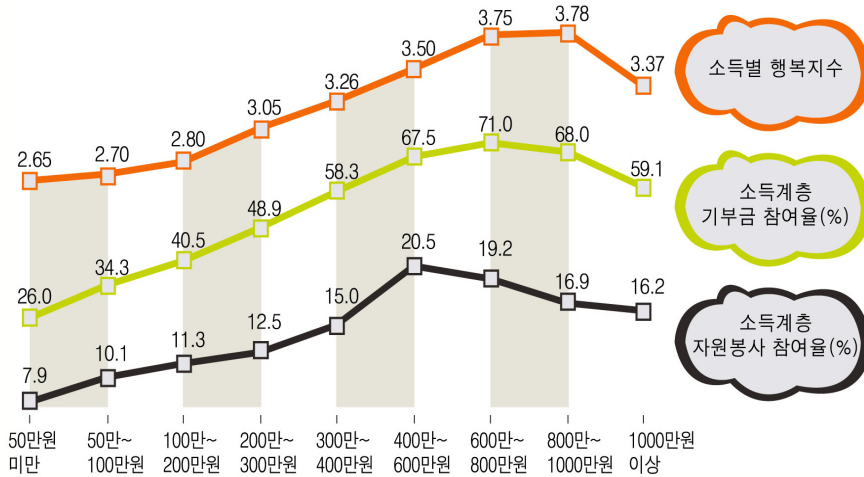
한국의 상대소득과 행복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흥미로운 자료가 있다. 아래 도표를 보면 다른 나라의 결과와 같이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최상위 1퍼센트인 소득이 월 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오히려 그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의 행복지수는 3.37로 소득수준이 월 4백에서 6백만 원인 사람들의 행복지수 3.50보다도 낮다.

월 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이지만 5백만 원 정도를 받는 사람보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한국의 교육 경쟁과 진급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피라미드 경쟁 구조에서 경쟁은 올라갈수록 더 심해지는 퇴직 압력 등의 스트레스를 견뎌야만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소득 수준만 보고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이들은 경쟁 사회의 희생자이며 또 성공 욕구의 희생자일 수도 있다. 경쟁에 모든 것을 바치는 이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소화해야 하며 마음의 여유가 없다.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는 최상위권 1퍼센트 사람들의 기부금이나 자원봉사 등 사회 참여율은 월 3백에서 4백만 원 소득 수준의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다.

19) The Health of Nations: Why Inequality Is Harmful to Your Health(Ichiro Kawachi, Bruce P. Kennedy, The New Press, 2002) 35쪽.

대한민국 1퍼센트 부자는 행복할까



자료: 대한민국 1% 부자는 행복할까 한겨레 2009. 5. 14.

또 하나 이들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회 경제적 위치는 최상위를 차지하면서도 자신들은 중하나 중상 정도의 위치를 차지한다고 느끼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의 앞으로의 사회 경제적 지위도 아주 낮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다른 어느 소득 계층보다 낮은 비관적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강도 높은 경쟁에서 성공한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녀의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한다. 최상위 소득 계층은 물질적인 풍요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3) 각자가 최선을 더 열심히 할수록 더 불행해지는 이유는?

각 개인의 행복이 간단하게 소득과 여가, 그리고 서열의 세 가지만으로 결정된다고 하자. 행복은 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고, 또 여가가 많을수록 높아진다고 한다. 그리고 서열은 상대소득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서열에서 등수가 높을수록 행복도 높아진다고 가정한다.

한 사회의 경쟁의 강도가 높을수록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등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등수의 높고 낮음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경쟁이 심해지면 소득과 여가의 감소로 잃는 행복보다 등수가 올라감으로써 얻는 행복이 더 크게 되어 사람들은 소득과 여가를 대가로 지불하여 높은 등수를 얻고자 할 것이다. 입시경쟁에서 주입식 교육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소득과 여가에 따른 나의 행복의 변화는 다른 사람의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나의 소득 변화에 따른 서열의 변화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나의 등수가 올라갔다는 것은 다른 어느 누구인가의 등수가 내려갔다는 뜻이고, 서열 변화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지수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나의 개인적인 선택이 다른 사람들의 소득과 여가에 아무런 변화를 초래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행복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경쟁의 강도가 높아지면 사람들은 더 많은 소득과 여가를 등수를 올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지 모르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그러한 투자는 낭비가 될 수 있으며 사회의 행복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경쟁을 강조하는 사회를 상상해보자. 등수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가와 소득의 많은 부분을 사용해서 등수를 올리려 할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등수만은 높이려 하기도 한다. 즉 여가는 먹고, 자고, 출퇴근하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줄이면서 노력해서 벌은 소득은 노후 대책도 없이 대부분을 자녀들의 입시 경쟁에 투자하는 극단적 경우가 그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등수 자체는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서 소득과 여가만 잃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경쟁을 극도로 강화하면 사람들이 경쟁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레야만이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각자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 등수를 올리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행동하므로 각자의 등수는 올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다. 등수를 올리기 위하여 지불한 희생이 헛되이 되고, 과도한 경쟁으로 각자에 피해만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비용만 지불하고 다들 제자리에 있게 되는 상황이다.

소득세와 공해세는 같은가?

문제는 어느 한 사람도 이 경쟁을 포기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다른 사람들이 모든 것을 희생할 정도로 등수를 높이는 데 치중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 사람이 경쟁을 포기할 경우에 그에 따라서 등수도 떨어져서, 그 사람의 행복은 한참 낮아지게 된다. 즉 개인적으로는 경쟁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할수록 사회 전체가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다. 이 상황은 공작의 꼬리 경쟁이나 아이리시엘크의 뿔과도 같은 상황이다.

경쟁이 과도하여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쟁의 강도를 낮추어야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경쟁의 강도를 낮출 수 있을까? 경쟁 약화를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영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레이야드(Richard Layard)는 세금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 아이디어는 공해세와 같다. 공해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생산품에 세금을 올림으로써 그 상품이 과도하게 생산되는 것을 막아, 공해도 함께 줄이는 것이다. 소득 격차가 크면 클수록 소득의 서열 경쟁이 강화되고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니 소득 격차의 심화는 공해와 같은 작용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공해가 클수록 많은 세금을 부과하듯이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그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소득 재분배를 통하여 분배의 균등을 꾀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경쟁의 강도를 낮추고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외에 한국 직장인들의 과다 업무를 줄여서 직장의 수를 늘리는 방법이나 정규직과 비정규직과 같은 차별 철폐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을 생산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분배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 역시 경쟁의 강도를 낮추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레드 퀸 효과

루이스 캐롤의 소설 <거울 속으로>의 인물인 레드 퀸은 주인공인 앨리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제자리에 있으려면 최선을 다해 뛰어야 해.”

최선을 다해서 뛰어 가야 제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 몸과 병원체 사이의 경쟁을 들 수 있겠다. 병원체의 침입은 우리의 몸이 면역력을 키우게 하여 병원체를 무력하게 만든다. 이렇게 면역력이 한 발 앞서는 상황도 잠시이고, 병원체는 변이를 거쳐 현존하는 면역력을 무력하게 만든다. 이제 병원체가 다시금 한발 앞서게 된다. 그러면 우리 몸은 다시 변이된 병원체에 대응하는 면역력을 키우게 된다. 결국 병원체와 우리 몸은 열심히 경쟁하여 제자리에 돌아오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는 상황은 과거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 상황과 유사하다. 군비 경쟁에서 특히 원자탄 개발의 경쟁은 한 때 절정에 이른 적이 있었다. 미국이 원자탄의 성능을 높이고 개수를 늘려서 군비 경쟁에서 앞서 간다 싶으면, 그에 대응하여 소련 역시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원자탄을 개발하고 그 개수를 늘렸다. 그 두 나라의 원자탄의 개수를 모두 합치면 지구 몇 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양이 되었고, 어마어마한 돈이 누가 먼저 쓸 수도 없는 원자탄 생산에 낭비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입시 경쟁과 취업 경쟁을 예로 들 수 있다. 경쟁이 강화된 사회에서 사람들이 등수를 올리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제자리에 머물게 된다. 예를 들어 입시 경쟁이 강화되어 어느 학부모가 아이의 사교육 시간을 늘리고 비용도 더 썼다고 하자. 그러나 다른 모든 학부모 또한 자신의 아이의 사교육 시간을 늘리고 비용도 더 쓴다면 대부분은 등수가 그 자리에 머물 확률이 높으며, 모든 사람이 등수를 올리기 위해 투자한 더 많은 돈과 시간은 낭비가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여 경쟁에서 이기려 하지만 결국은 다들 제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등수 경쟁과 같이 상대 평가로 결정되는 행복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들 열심히 뛰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구성원들은 아무런 변화 없이 항상 제자리에 있게 마련이다. 경쟁이 심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빨리 뛰려고 하며, 더 많은 고통과 비용을 지불하지만 그들 모두는 상대적으로 제자리에 머물게 되므로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쟁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경쟁에 더 많은 투자를 하지만 레드 퀸 효과에 의해 모두들 제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십여 년 전부터 성장, 세계화, 글로벌 리더 배양, 선진화 등의 구호 아래 차등화를 강화하고 경쟁을 조장하여 경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

나 이제 사람들은 무한 경쟁 사회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제자리에 머물기조차 힘들고, 오히려 삶의 의욕 상실, 노령화, 출산 거부, 성장 동력 상실 등으로 사회 전체의 후퇴를 초래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열심히 뛰는데 제자리에 있게 하는 경쟁, 더 빨리 뛸수록 고통만 증가하는 경쟁에서, 이제 남보다 더 빨리 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치열한 경쟁을 하루라도 빨리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4) 미래의 행복은 과도한 성장 논리와 경쟁 논리의 지속에 있는가?

한국의 기성세대는 많은 것을 희생하여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기성세대의 성공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그와 함께 한국은 과도한 경쟁 논리와 성장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까지 희생시켜가면서 성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는 가난과 굶주림의 시대에는 적합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논리는 그 소명을 다하였다. 이제는 오히려 성장 우선 논리가 과다해서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의 물질적 풍요와 함께 젊은 세대가 물려받은 사회는 ‘무한 경쟁 사회’로 불리며, 젊은 이들의 희망이 좌절된 사회, 대학이 모두에게 필수가 된 과도한 경쟁 교육 사회, 그러나 기회는 극소수에게 주어지는 낭비의 사회, 아이를 낳기를 거부하는 사회, 우울증과 정신병이 만연된 사회, 입시 경쟁 교육으로 집단적 아동 학대가 강요되는 사회, 가정 해체가 요구되는 사회, 직장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일 많이 하고 강도 높은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하는 사회, 과도한 압박에 자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회이다.

기성세대가 성공적으로 도입한 무한 경쟁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올라미는 젊은 세대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그 올라미 속에서 그들이 겪는 고통의 해결은 그들 자신들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다.

경쟁과 대립의 사회에서 이제 화합과 소통이 필요하다. 있는 자와 없는 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기업과 직장인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소득층과 저소득층들이 서로 적대시 하는 풍토가 완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갖고 있는 무한 경쟁의 가치의 재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쟁의 가치에 근거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미래 세대가 과도한 경쟁으로 우울증, 정신병, 자살, 출산 거부, 의욕상실, 사회 유대 약화, 계층 간의 불화, 적대감등으로 고통 받는 사회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고 서로 나누는 희망이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